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초대 사령탑 최만희 감독

“공격적 플레이 정열적 팀 만들 것”

“광주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강한 축구, 정열적인 팀을 만들겠습니다.”

최만희(54) 전 전북현대 감독이 18일 광주 FC(가칭) 초대 감독으로 선임됐다.

광주시민구단의 첫 사령탑을 맡은 최 감독은 광주 출신으로 전남기계공고와 중앙대를 거쳐 협연 선수로 활동했고, 1991년 울산 현대 2군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고향위한 마지막 봉사라 생각

지역 인재발탁 광주색깔 낼 것

1997년 전북 현대 지휘봉을 잡았던 최 감독은 2002년 부산 아이파크로 자리를 옮겨 코치와 부단장 역할을 수행했다.

을 시즌 수원 삼성에서 코치로 활동했던 최 감독은 성적부진을 이유로 차범근 감독과 함께 중도에 사퇴를 했지만 고향팀 초대 감독으로 K 리그에 복귀하게 됐다.

최 감독은 이날 광주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한 축구’를 지향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최 감독은 “8년 만에 감독자리에 복귀하지만 현장에서 30년간 활동을 하면서 프로 행정과 지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행하는



고 있다”며 “공격적이고, 빠른 플레이를 구사해 재미있는 축구를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시민구단으로 창단을 앞두고 있는 민족 지역의 색을 대변하고 광주 출신 인재들이 중심이 되는 광주팀을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최 감독은 “당장 성적을 내지 못하더라도 초대 감독으로서 인정적으로 팀이 꾸려지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하는 민족 최대한

내년부터 K-리그 참가

초대 단장엔 박병모씨

지역 출신의 지도자들과 선수들을 영입해 선수단을 꾸릴 계획이다”며 “시민구단으로서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중용하면서 스타 플레이어를 키워내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주 FC 초대 단장에는 전남일보 경영관 본부장을 역임한 박병모(52)씨가 임명됐다.

지난 12월 한국프로축구연맹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참단승인을 받아 2011년 K 리그 참가가 확정된 광주 FC는 단장과 감독 선임까지 끝마쳐 창단 작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출신 女기사 이영주 5단

국제 아마 바둑선수권 정상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등 생활체육검도연합회

전통무예 세계대회 3개부문 우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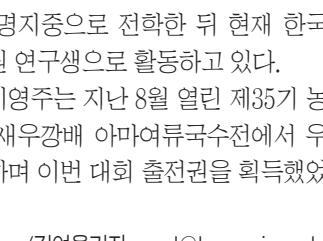


광주 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영주 5단은 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1회 국제아마추어 페어 바둑선수권대회에서 송홍석(22) 7단과 한조를 이워 5전 전승으로 한국의 2연패를 장식했다.

22개국 32개팀, 64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이-승 조는 결승에서 만난 일본 히로카오 유리코-히로카오 사토시 부부를 229수 만에 백 3집반승으로 제압하고 정상을 차지했다.

최 감독은 “8년 만에 감독자리에 복귀하지만 현장에서 30년간 활동을 하면서 프로 행정과 지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감독직을 수행하는



6살 때 바둑을 시작한 이영주는 동아여중 2학년때 바둑공부를 위해 서울 명지중으로 전학한 뒤 현재 한국 기원 연구생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영주는 지난 8월 열린 제35기 농심 새우깡배 아마여류국수전에서 우승하며 이번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었다.

본국검법 여자부 단체전(3인조)에 출전한 배현민·김환희·박아람 선수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재학생들로 이제방 교수의 지도가 우승에 밀려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국검법과 조선세법은 우리나라의 전통검법으로 검도수련의 한 부문이다.

▲광주출신의 이영주(여·20·사진 왼쪽) 5단이 국제아마추어 바둑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